

에너지 공기업 ‘빨간불’ OFF “에너지를 아깝시다”

한전 누적 적자 21조8342억원 등 오일쇼크 이후 최대 위기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대국민 절약 캠페인 등 시행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직면한 최대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 사상 최대 적자를 낸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이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대책을 시행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석탄·석유·천연가스 가격이 치솟는 이른바 ‘워플레이션’(Warflation)이 지속되는 가운데 추운 겨울을 앞두고 에너지 낭비를 바로 잡을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한국전력 ‘전력통계월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광주·전남 전력판매량은 3332만MWh(메가와트시)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191만MWh)보다 4.4%(141만MWh) 증가한 수치다. 광주는 2.3%, 전남은 2.1% 사용량이 전년보다 늘었다.

지난 1년 동안 공장 가동에 쓰이는 산업용 전력 사용량은 광주 0.7%·전남 5.0%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자영업자가 주로 쓰는 일반용 전력 사용량은 광주 5.2%·전남 6.1% 늘며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높았다.

같은 기간 주택용 전력은 광주 2.3%·전남 2.1%, 농사용은 광주 11.5%·전남 6.1% 늘었다.

올해 들어 광주·전남 전력 사용량은 10년 전인 2012년보다 21.6% 늘었고, 국제 유가 폭락을 겪었던 2008년보다는 무려 52.7% 증가한 규모다.

에너지 공기업 한국전력은 올해 연료비 급등으로 인해 전력 도매가격이 2배 넘게 뛰었지만, 전력 사용량마저 늘면서 22조원 가까운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은 에너지 위기 지속으로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연결 기준 누적 영업손실이 21조8342억원에 달

했다고 최근 공시했다.

1~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 영업손실이다.

1분기와 2분기 각각 7조7869억원, 6조5164억원의 적자를 본 데 이어 3분기에는 전분기보다 1조원 넘게 늘어난 7조530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3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로, 중전 최대였던 지난해 3분기(-9366억원)의 무려 8배로 적자 폭이 확대된 셈이다.

아울러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손실도 중전 최대치가 전년 동기(-1조1240억원)였는데, 올해는 무려 20조7102억원이나 늘었다.

1~3분기 매출액은 전력판매량 증가와 요금조정에도 6조6181억원 늘어난 51조7651억원에 그쳤으나 영업비용은 연료 가격 급등으로 27조3283억원이나 급증한 73조5993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까지 전기 판매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5조4386억원(12.8%) 늘어난 47조9568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자회사 연료비는 10조8103억원, 민간 발전사 전력 구매비가 15조7299억원 증가하는 등 비용은 훨씬 큰 폭으로 늘었다.

전력 수요 증가로 발전량이 증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연료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전력 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은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올해 9월까지 SMP는 kWh(킬로와트시)당 177.4원으로 지난해 동기(83.3원)보다 113.0% 상승했다.

반면 한전의 1~9월 kWh당 전력 판매 단가는 지난해 107.6원에서 올해 116.4원으로 8.2% 오르는 데 그쳤다.

산술적으로 전력을 177.4원에 사서 116.4원에 판 셈이다.

4분기에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올해 연간 30조원에 가까운 적자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는 양상이다.

한전 측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 지속에 따른 대규모 적자 누적과 이로 인한 재무 구조의 급격한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 신호의 적기 제공을 통한 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고, 재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기요금 정상화와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3개년 동절기 에너지 평균 사용량을

10%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을 지난달 18일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

여기에는 실내 평균 난방온도를 17도로 제한하고 권역별 전력피크 시간대(광주·전남 오후 4시 30분~5시)에는 난방기를 끄고, 밤 11시부터는 경관 조명을 끄는 등의 5대 실천방안이 담겼다.

한전도 광주 등 8대 도시를 거점으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겨울철 에너지 절약 대국민 캠페인을 14일부터 펼친다. 가두 캠페인 방식으로 각각 집안과 상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방안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사업과 뿌리기업 효율 향상 지원, 전력다소비 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등도 집중 시행한다.

최연희 한전 수요관리처 차장은 “이번 에너지 절감 운동은 기존보다 한 달 앞당기고 한 달가량 연장할 정도로 에너지 위기가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진다”며 “겨울철 에너지 절약 중요성 메시지 전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에 많은 호응을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배추 20포기 김장비용 22만원...작년보다 9.1% 하락”

aT, 가을배추 출하량 증대로 배추 가격 떨어진 영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0일 기준 배추 20포기 김장비용은 22만1389원으로, 지난해 11월 초(24만3575원)보다 9.1% 하락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주 전(10월 27일)의 25만4546원과 1주 전(11월 3일)의 24만3959원보다 각각 13%, 9.3% 낮은 가격이다.

가을배추 출하량 증대로 김장재료 중 비중이 큰 배추 가격이 하락하면서 김장비용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10일 배추 가격은 포기당 3235원(상품 기준)으로 2주 전보다 29.3%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보다도 23.2% 낮은 수준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김장철에 공급되는 가을배추 생산량은 전년보다 10.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금은 6kg 기준 1만4225원으로 지난해 1만 2295원보다 소폭 상승한 가격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무는 5개 기준 1만3217원이다. 지난해(8780원)보다 가격이 높은 상황이나 수확 산지 확대로 최근 가격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그 밖에 고춧가루(-6.8%), 깻마늘(-5.4%), 쪽파(-22.8%), 새우젓(-22.9%)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아졌다.

현재 하락 추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올해 김장비용은 전년보다 낮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경제연구원의 김장외향조사 결과 응답자의 74.6%가 ‘11월 중순부터 12월 상순’에 김장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aT는 이번 조사를 위해 전국 17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주요 김장재료 14개 품목을 조사했다.

지난달 세계김치연구소와 대한민국의치협회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저염식 선호·김치냉장고 보편화 등 소비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지난해와 달리 조사 품목에서 소금, 새우젓의 비중을 줄였다. 속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배, 양파를 추가했으며 장기 저장이 어려운 굴은 제외했다.

변경 전 기준으로 김장비용을 분석하면 10일 배추 20포기 기준 32만585원이다. 이 역시 지난해보다 5.6% 하락한 수치다.

정부는 김장재료 수급 안정을 위해 김장철 동안 견고추·마늘·양파 비축물량 1만t과 천일염 500t을 시장에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통해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김장재료 할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1인당 최대 2만원, 전통시장에서는 최대 3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여수산단 GS칼텍스 올레핀 생산설비 준공

전남도·여수시 등 투자협약 결실...에틸렌 등 125만t 생산

GS칼텍스 여수공장이 지난 11일 에틸렌 75만t, 폴리에틸렌 50만t의 생산시설을 갖춘 ‘GS칼텍스 올레핀 생산설비 준공식’을 갖고 본격 생산에 돌입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박준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GS그룹 허태수 회장, GS칼텍스 허세홍 대표, 김희재 국회의원, GS그룹 경영진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이번에 준공된 올레핀 생산시설은 민선 7기에 전남도·여수시-GS칼텍스가 투자협약을 맺고 4년 간 여수국가산업단지 약 43만㎡ 부지에 2조 7000억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갖춰 결실을 맺은 것이다.

올레핀은 천연가스, 원유 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석유화학제품의 기초 유분(에틸렌, 프로필렌 등)으로 플라스틱, 합성섬유, 합성고무 소재로 쓰인다. 이 제품들은 가공이나 성형과정을 통해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비닐봉지, 일회용품 등 플라스틱 제품으로 널리 활용된다.

올레핀 생산시설은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는

기존의 NCC 공정과는 다르게 나프타, LPG, 저부가 부생가스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국내 최초 신기술’로 NCC공정 대비 경쟁력이 우수하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장점이 있다.

GS칼텍스는 단일공장 석유정제 능력 세계 4위, 국내 최대 중질유 분해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수출 대표주자로서 지역경제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4월엔 GS칼텍스 여수공장 생산시설 가동 연료를 저유황 중유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 대체해 국내 에너지기업 최초로 스페인에서 탄소중립 인증 원유 200만 배럴을 도입하는 등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김지사는 “GS칼텍스가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를 확대해 에너지·화학 산업을 넘어 바이오소재, 수소 등 친환경 산업을 선도하는 세계 일류기업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기업과 지역이 상생발전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경품 증정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왼쪽 4번째)은 지난 9월까지 1년 동안 진행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경품행사에 당첨된 고객들을 초청해 태블릿PC 등 상품을 전달했다. 이 카드는 전남에 2년 이상 거주하는 21~28세 청년에게 공연 관람과 학원 수강 등록 등을 위한 연간 지원금 20만원을 제공한다. 광주은행은 카드 온라인 신청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카드 발급·관리를 맡았다. <광주은행 제공>

광산업진흥회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성과

광주 증기 90여곳 발굴 266명 일자리 창출

한국광산업진흥회는 ‘2022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추진 결과 올해 266명의 지역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진흥회는 지역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4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며, 진흥회는 지역 일자리 거점기관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올해 진흥회는 광주지역 우수 중소기업 90여 곳을 발굴해 취업 연계를 진행했다.

올해 거둔 일자리 창출 성과는 266명에 달한다. 진흥회는 ‘제3회 우리지역기업 바로알기 공모전’ ‘채용실태조사’ ‘채용박람회’ ‘3인3색 인터뷰(청년토크)’ ‘채용설명회’ ‘중소중기업 발굴인중’ ‘홍보동영상 제작지원’ 등 7개 세부 사업을 추진했다.

또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인식 개선 공모전과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문화의 밤’도 열었다.

진흥회는 우수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위한 채용정보를 광주잡넷(gwangjujob.net)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진흥회가 운영 중인 ‘광주잡넷 일자리 플랫폼 서비스’는 매년 고도화 작업을 거치고 있다.

정철동 진흥회장은 “고용집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과 구직자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산업 일자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회는 오는 23~24일 개최하는 2022 국제 광융합산업 전시회 및 컨퍼런스에서 지역혁신프로젝트 채용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박래석(오른쪽)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장이 지난 11일 열린 ‘4회 K-페스티벌’에서 ‘K-큐브’ 우수 개선 사례 발표를 듣고 있다. <기아 제공>

기아 오토랜드 광주, 개선 사례 발표 ‘K-페스티벌’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지난 11일 임직원들이 우수 개선 사례를 나누는 지식 나눔의 장 ‘4회 K-페스티벌’을 기아 오토랜드 광주 연구동에서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기대되는’ ‘흥이나는’ ‘신이나는’ 3개 공간으로 구성됐다.

‘기대되는’에는 총 5개팀이 K-큐브(Cube) 우수 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익스텐션 실러 도포 문제점 개선’ ‘사시메리치 통신 이상 중단 개선’ ‘상도부스 급·배기 최적화’ ‘버스도장 작업리프터 안전개선’ ‘후드-루프 보호커버 부착기준 변경’ 등이 포함됐다.

연구동 1층에 전시된 사례에 대해 임직원 참가자들이 서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공유회가 진행됐다.

이외 다양한 놀이를 진행하는 ‘흥이나는’과 12개팀이 벽돌쌓기를 겨룬 ‘신이나는’ 공간도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기아 관계자는 “오토랜드 광주 개선사례 발표회인 K-큐브에 더욱 많은 임직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자 개최한 K-페스티벌이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게 됐다”며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K-페스티벌을 임직원들이 함께 지식을 공유하고, 재미를 공유하는 임직원들의 축제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6	7	9	11	17	18	45	
등위						당첨금(원)	당첨지수
1	6개 숫자일치					935,091,165	25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45,837,803	85
3	5개 숫자일치					987,133	3,947
4	4개 숫자일치					50,000	167,535
5	3개 숫자일치					5,000	2,620,869